

경기도, 자율주행 핵심 기술 세계 사로잡았다

세계 우수 기업의 관심과 각종 컨퍼런스 초청 잇따라

“경기도의 선진화된 자율주행 알릴 수 있는 계기 되었다”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세계 최대 IT·융합기술 전시회인 ‘CES2020’에 참가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선보이며, 국내 자율주행 혁신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 물꼬를 텄다.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가해 샌즈 엑스포(Sands Expo) 1층 G홀 유레카파크(6개, Eureka Park)와 일반관(2개)에 총 8개의 전시부스를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유일의 R&D 전문 연구기관인 융기원은 8곳의 입주기업

과 함께 ‘CES 2020’ 유레카파크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모라이) △자율주행 정밀지도·공간정보 소프트웨어(모비테크) △딥러닝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델(에이모) △V2X 차량 및 기지국 시스템(웨이티즈) △자율주행차 센서(비트센싱) △제로모빌리티 및 제로셔틀(경기도자율주행센터) 등 6가지 분야를 선보였으며 △자율주행용 라이다 센서(에스오에스랩) 라이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서울로보틱스) 등 2가지 분야는 일반관에서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 기술들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요한 핵심기

술들로, 세계 우수 기업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각종 자율주행 분야 협회 및 기업 등의 컨퍼런스 초청이 잇따랐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더 기업인 (주)비트센싱은 자체 개발한 ‘트랙픽 레이더’로 미국소비자기술 협회(CTA)가 선정한 ‘CES2020 혁신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트랙픽 레이더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정밀 실시간 교통정보 레이더 센서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9월 한독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비즈니스 혁신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이번 ‘CES 2020’에서 제로셔틀의 후속 모델이자 자율주행으로 실내의 이동이 가능한 1인승 전기 모빌리티 ‘제로PM’을 선보여 해외 참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이번이 경기도의 선진화된 자율주행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융기원과 함께 자율주행 분야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센터는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개발과 스타트업의 실증 테스트 및 빅데이터 수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천군 미세먼지 줄이기 30억 지원

충북 진천군은 증가하는 인구 규모에 대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우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나선다.

3년 이상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신규설치 비용으로 30억여 원을 지원한다.

대기배출사업장이나 건설공사장,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상시 감시하는 감시단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 물질로 작용하는 주요소 유증기 회수를 위해 6개 주유소에 1억원을 들여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한다.

300여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6억원을 투입해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2020년 이전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기업체에 40대의 전기자동차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억원을 들여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교체한다.

가축분뇨 적정 관리를 위해 정화시설 방류수질 검사, 무허가 축사 점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실태 점검, 가축분뇨 적정관리 홍보 등 예방활동을 한다.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증가하는 인구 규모에 맞는 쓰레기처리 시설 대책도 실행에 옮긴다.

138억원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문백면 일원에 조성해 2021년부터 하루 40톤의 음식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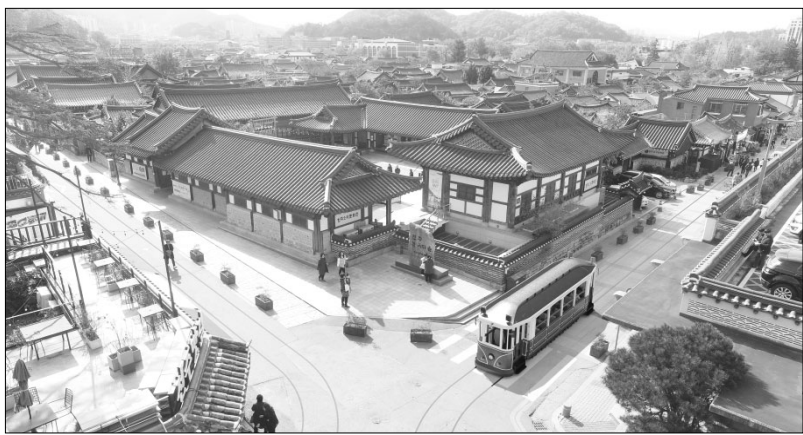
95억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음성군 맹동면 구 매풍리에 증설해 2022년부터 진천·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게 된다.

2020년 추진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주민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뉴스1

전주시 “국내 첫 관광트램 도입 추진...한옥마을 순환”

국내 최초 무제한 시내버스 승차권도 도입



전북 전주시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 도입과 지·간선

제 확대 등 교통서비스 혁신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관광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15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혁신적인 교통서비스 구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민 감동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등 올해 교통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외곽지역 등 교통오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시내버스 노선 지·간선제 확대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한옥마을 일대에 국내 최초의 관광트램(내부 순환형) 도입

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2월 완료된다.

전주시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의 하나로 역시 국내 최초로 무제한 시내버스 정기승차권을 도입한다. 1월, 2월, 30일짜리 승차권을 구입하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실시간 운행상황 관리를 위한 버스운영관리시스템(BMS) 구축 △시내버스 운전사 1일2교대제 전면 시행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교통복지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권 도로와 이면도로 안전속도를 각각 50km/h와 30km/h

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린대교와 장승배기로에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정비하고, △삼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횡단도 및 보관대 등 자전거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4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20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해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강화 △체납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 △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은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해 창업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5팀을 선정해 창업지원금 1000만원과 창업공간임차료를 월 최대

40만원 규모로 최대 2년간 지원하고, 기타 다양한 창업교육·컨설팅(관로지원 포함) 등도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2월12~21일이며 신청대상은 기장군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39세 이하의 청년이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인구 유출, 지역산업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업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인턴’과 문화비축기지서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 문화비축기지는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 글로벌 인턴 클라우딘(Claudine)과 함께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14일부터 2월21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딘과 함께하는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 동화책 교실’과 ‘영어 해설투어’ 두 가지로 운영 예정이다. 영어 동화책 교실은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동화책 읽기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제를 달리해 ‘The snowy day’, ‘Where

the wild things are’ 등 다섯 가지 재미있는 동화를 영어로 진행한다.

또한 어른과 어린이, 가족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영어 해설투어는 문화비축기지의 매력적인 공간을 능숙한 영어해설로 들으며 전시와 공원을 감상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 건축적 의미에 대한 질문과 대답 또한 영어로 이루어지며 즐거운 대화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한다. 2008년부터 총 87개국 705명의 유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인턴 클라우딘은 제25기 서울시 글로벌 인턴에 선정돼 문화비축기지서 2월 2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연세대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이며, 르완다 출신이다. 문화비축기지 02-376-84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